



[4734호] 1면. 2017년 12월 11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4757호] 1면. 2018년 5월 21일자. 5월 20일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사 5만명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



[4764호] 1면. 2018년 7월 9일자. 익산 응급실 의사 단독 인터뷰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



[4845호] 1면. 2020년 3월 16일자. 코로나19 분투, 습관적 의사의 고갈.



[4865호] 1면. 2020년 8월 10일자. 8월 7일 의사 기운 베푼 전공의를 단체행동.



[4929호] 1면. 2021년 12월 20일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의협 방문.



[4961호] 1면. 2022년 8월 29일자.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료연대 "간호법 폐기".



[4962호] 1면. 2022년 9월 5일자. 지역주민 생명전선 지키는 필수 의료 의사들.



[4975호] 1면. 2022년 12월 19일자. 대한의사협회 이준동 신축회관 새출발.



[4987호] 1면. 2023년 3월 20일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활자 및 제목 확대 개편.

새로운 100년 준비

발로 뛰며 쌓아올린 5000호

16면에서 이어집니다

[의협신문]은 정책 좌담회·KIMES 경영 세미나·시사적 글쓰기 아카데미 등 회원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회원들의 여가 활동도 주도했다. 1969~1971년에는 의사 바둑동호인들의 기력을 겨룬 전국의료인바둑대회를 주관했으며, 1971년부터는 의인미전을 열어 동양화·서양화·서예·공예품 등 의사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1969년 시작된 의사연식정구대회는 서울·부산·대구지역 등을 순회하며 7회까지 열렸다. 1974년에는 전국 의사 테니스대회로 전환해 2000년대 후반까지 의사테니스 동호인들의 버팀목이 됐다. 1969년 선보인 제1회 전국의료인 친선야구대회에는 회원과 가족은 물론 치과 의사까지 참여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했다.

[의협신문]은 시·소설·수필·그림·사진 등 장르에 구분 없이 회원들의 예술 작품을 소개하며 문화 공유의 장을 열고 있다.

현재 '책 세상', '시가 있는 삶', '기고',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0년 아이티 지진 현장 취재.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국내 최고 권위 보령의료봉사상 제정 39회 시상식...400여 '인술 인생' 조명

1985년 보령제약과 함께 제정한 '보령의료봉사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의료봉사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술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을 발굴해 참된 의료인상을 알리고 의술의 존귀한 가치를 정립하고 있다. 올해 39회 수상자를 낸 보령의료봉사상은 지금까지 400여 회원의 인술 인생을 세상에 알렸다.

전문언론 선호도·신뢰도 1위
새로운 100년 향한 도전 계속

[의협신문]은 각종 매체가 범람하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보건의료계 대표언론으로 손꼽히고 있다.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의협신문]과 [DOCTORS NEWS(인터넷 의협신문)]의 매체 선호도(61.7%)와 신뢰도(72.6%)는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의협신문]과 [DOCTORS NEWS(인터넷 의협신문)]은 '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를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개선 ▲직업전문성 확보 ▲자율규제 확립 ▲의약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4997호] 1면. 2023년 6월 5일자.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의약 및 의료산업 발전을 지향하는 의학전문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령 5000호]는 지난 56년 동안 역대 발행인·편집인과 의협신문 취재 및 편집기자와 광고를 비롯한 업무 직원들이 한 발 한 발 힘 들이고, 애를 써 쌓아올린 각고(刻苦)의 결과물이다.

[지령 5000호]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한 발 더 뛰어나야겠다는 다짐의 이정표이기도 하다.

[의협신문]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의로운 의료문화를 만드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질책을 바란다. 지금까지 독자께서 보내준 성원을 엄숙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모습으로 100년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의협신문 취재팀/편집팀/정책산업팀 일동]